

1. 진로 목표(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이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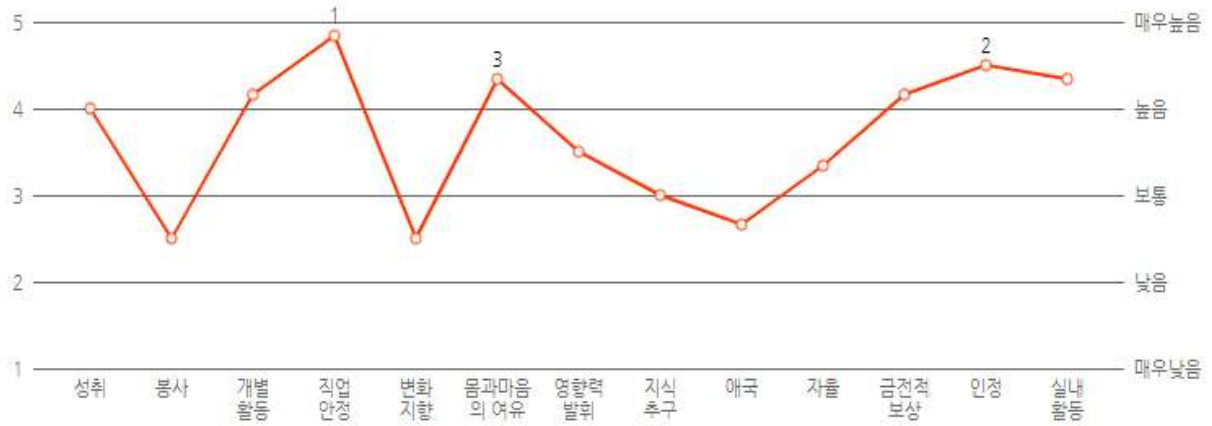
먼저 제가 선택한 진로 목표는 ‘번역가’입니다. 번역가를 선택한 이유는 제 좌우명인 ‘불광불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광불득이란 ‘어떤 일에 집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직업을 가진 뒤로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자기 분석을 통해 꾸준히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인 ‘번역가’를 목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자기 분석(예시: 성격, 흥미, 장단점, SWOT 분석 등 활용)

워크넷 등을 통한 객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먼저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무슨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를 통해 알맞은 직업을 먼저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제가 원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성격 검사에서 권장하는 직업에 휩쓸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업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앞서 진로 목표에 쓴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직업을 가진 뒤에도 일을 하면서 매년 노력하는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제 자신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장가능성입니다. 꾸준히 노력만 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제자리걸음이라면 분명 지칠 것입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마땅한 성장과 대가가 주어지는 직업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 마음 먹은 것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고 늘어지는 성격입니다. 요즈음의 사회 분위기로는 한 사람도 직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선택한 직업만큼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선택한 다음으로는, 워크넷을 통해 직업 가치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심리검사로, 제가 생각하는 직업가치관과 설정한 직업(번역가)과의 관계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 (출처:워크넷)

제 검사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저는 직업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 다음으로는 제 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과 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승리님께서 희망하신 첫번째 직업은 번역사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승리님께서 희망하는 직업의 가치모양과 본인의 가치모양을 비교한 것입니다.



직업가치관-희망직업 비교 결과 (출처:워크넷)

이번에는 번역가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관을 비교한 것입니다. 인정 항목이 조금 낮은 하지만, 대체로 제가 선호하는 가치점수가 일치하는 직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목표 분석(예시: 직무(직업) 분석, 기업 분석 등)

이번에는 ‘번역가’가 하는 일과, 업무 내용, 그리고 필요한 역량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번역가는 어떠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의뢰를 받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량적인 요소를 찾기 보다는 잡코리아를 통해 직업인 인터뷰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인터뷰는 현재 20년째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영미

소설 번역가의 인터뷰입니다.



영문소설 번역가 이진 (출처:잡코리아)

인터뷰를 통해 저는 현직 번역가의 하루 일과와, 번역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장단점과 함께 실제 번역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번역은 마감 날짜를 맞춰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직업입니다. 다행히 MBT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계획형이라 불리는 J이기도 하고, 어떤 약속이나 마감 기한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으므로 자기관리가 필요한 직업인데 인터뷰어는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여타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9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6시에 마치는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번역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어일문학과에 재학중인 만큼 전공을 살려 일본어 번역을 해야겠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뷰어는 영문소설을 번역하고 있지만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번역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터뷰어가 졸업한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실력을 증명한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번역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면 통번역전문대학원 한일과에 진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가를 하며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한 일을 선호하는 제게 무척 알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번역가는 따

로 출판사에 출퇴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집안의 분위기를 잘 정돈하고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신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으니 건강을 챙기기도 해야 합니다.

4. 계획 수립 (예시: 학년별(학기별) 계획, 분야별 경력 개발 계획 등)

다음으로는 앞으로 졸업하기까지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제가 세울 수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번역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만큼 제 목표는 장기간으로 잡지 않고 코앞에 있는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가올 4학년 1학기에는 먼저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통번역대학원 한일과에 지망하는데 웬 한국어 능력인가 싶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번역을 해야 하는 만큼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하면 좋겠지만, 졸업 후 빠르게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단순히 일본어 능력만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 또한 뛰어난 사람을 더 선호할 것이므로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입니다.

전 학과 (한영과 제외)	1차 시험 (필답시험)	전공외국어 작문(한국어,전공외국어)	60 60	60 40
	계	2과목		100점
	2차 시험 (구술시험)	전공외국어구술	-	100
	계	1과목		100점

통번역대학원 1차, 2차 시험 (출처:한국외국어대학교)

또한 2024년 7월에 있을 JLPT에서 N1을 고득점으로 취득하여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통번역대학원 시험은 학사졸업자를 기준으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수험자의 대부분이 N1을 만점으로 취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자의 수준이 높은 입시입니다. 그러므로 만점을 목표로 하여 N1을 취득하고, 동시에 일본어 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로 통번역대학원 입시 학원 수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어 논술과 구술로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과 조금 다른 방식이라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현직 직장인과 번역가가

많기 때문인지 비대면 강의도 진행하고 있어, 4학년 수업과 병행하여 수강할 예정입니다.

5. 졸업 후 5년, 10년 후의 내 모습

졸업 후 5년, 1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MBTI로 따졌을 때 S인 만큼 당장 그려지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직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그려본 제 졸업 후 5년, 10년은 비교적 현실적입니다. 그저 희망차게 번역가가 되었을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 앞서 제가 생각한 계획을 따랐을 때 보이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입시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며,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 시험이 1년 동안 시험이 단 한 번뿐 이기에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단번에 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저는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병행하며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가졌던 직업인 웹디자이너 혹은 인터넷 마케터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내로 합격하는 것이 목표지만 중간에 번역가에 대한 꿈을 접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전공을 살려 한일 마케터로 일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5년 후, 10년 후의 제 모습이 현재보다 나아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게나마 개인 의뢰를 받아 번역가로 일하고자 합니다.

6. 출처: 정보 출처 기재(예시: 온라인 사이트, 참고 문헌(서적/자료), 취업 선배 등)

직업 가치관 검사, 2023.04.10.,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번역 직업인터뷰, 2016.06.37.,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starter/interview/View/20336>

통번역대학원 시험과목 및 배점, 2023.12.20.,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https://dep.hufs.ac.kr/gsit/7397/subview.do>